



3면

'돌고래외교' 강조 나선 이낙연 전 총리

전주매일

2023년 8월 28일 월요일 (음 7월 13일) 제333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김관영 도지사, 잼버리 파행 사실관계 해명 나서 “전북만 책임? 온당치 못해”

“실패 원인 제대로 진단 못하면 잘못된 처방” 우려

“새만금 사업, 34년 동안 추진해 온 국가 프로젝트 관련 예산 삭감 막아낼 것”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25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이원택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 실국장들과 함께 잼버리와 관련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새만금 잼버리 파행과 관련된 질의가 무산된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가 사실관계 해명에 나섰다. 김 지사는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적으로 물어가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은 잼버리 개최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다며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번 대화는 대통령이 명예총재인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최 기관이고 국무총리가 정부자문위원회 위원장 3개 정부부처 장관이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아 치른 범국가적 국제 행사라면서 “잼버리 파행 책임을 모두 개최자인 전북으로 몰아가며 희생양을 삼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다.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잘못된 처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개별 사업별로 실제 이뤄진 일에 기반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그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며 “전북은 개최로서 대화기간 중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많은 책무를 스스로 짊어졌다. 전북도의 일, 조직위의 일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도민들의 헌신적 노력이 매도당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전북을 폄하하고 애꿎은 새만금 사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시도까지 벌어지고 있다면서 “더 이상 묵과할 수도 용인할 수도 없다. 전북도민의 명예를 위해 의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잼버리 파행의 문제를 새만금과 연관짓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은 전북만의 사업도, 더불어민주당만의 사업도 아니다. 과거 노태우 정부가 최종 계획을 확정하고 역대 정부가 국가적 과제로 무려 34년 동안 추진해 온 초당적 사업이자,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했다.

이어 “최근 새만금 관련 예산 삭감 등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새

만금과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자체를 부정하는 이해할 수 없는 시도다. 500만 전북인들이 단결해서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임위와 국정조사 출석에 응하겠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김 지사는 “상임위나 국정조사를 통해 저를 꼭 불러달라. 언제든지 나가 국민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며 “국회에서의 증언이 무산된다면 5인 조직위원장과 전북도지사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저마다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확인하고, 교훈을 찾기 위한 진지한 노력과 겸허한 자세를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호소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에 대한 현안 질의를 위해 25일 예정됐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는 정부여당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김재훈 기자

“9월 4일, 교권 회복·학습권 지키는 날”

서거석 교육감, 재량휴업일 변경 검토 제안... “교권 보호 대책 마련 등 적극 나설 것”

서거석 교육감(사진)은 지난 25일 “사이초 교사의 49세 날인 9월 4일은 교권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교육 회복의 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이날 9월 4일 교육 회복의 날 입장문을 통해 “한여름 무더위에 아랑곳없이 교사들이 주말마다 광화문에서 추모를 이어간 것은 다시는 이런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라는 엄중한 촉구이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의침이었다”면서 이갈



이 밝혔다. 이어 “사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교육공동체가 뜻을 모아왔듯이 교권 회복을 위한 한바름을 이어가야 한다”면서 “9월 4일을 함께 추모하자”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서거석 교육감은 “각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를 거쳐 재량휴업일을 9월 4일로 변경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서 교육감은 “전북도교육청은 교권을 지키기 위해 올해 4월 전국 최초로 ‘전라북도교육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학생인권센터를 교육인권센터로 확대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교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과 필요한 제도 개선 나아가 관련 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장은성기자



몽골서 전북 공공외교 한마당

지난 25일 몽골 울란바타르시 수호비터르 광장에서 전라북도 공공외교 한마당 한국주간행사 개막식이 열린 가운데, 김중구 주몽골대사, 돌고르수렌 소비이브치르 울란바토르시 시장, 류창수도 국제관계대사,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이동섭 국가원장, 태권도 시범공연단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전주시가 하천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도를 개선하고 CCTV를 확충하는 등 치안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있다.

시는 전주천과 삼천 등 하천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하천 산책로 조도 개선과 차단시설 및 CCTV 설치, 풀베기 등 다양한 하천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시는 일몰 이후 야간시

전주시, 하천 산책로 이용 시민들에 안전한 환경 제공

전주천·삼천 등에 조도 개선·CCTV 설치·풀베기 등 추진

간대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는 수준으로 조도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까지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전주천·삼천의 노후화한 가로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거나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삼천 세내교에서 홍산교까지 6km 구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구간에는 오는 11월까지 LED등 교체 48개소, 신설 95개소, 투광기 35개소 등의 설치 규모가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삼천 홍산교에서 팔복동 추천대(좌안)까지 1.5km 구간에 대해서는 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가로등 45개소를 설치한다.

이후 시는 전주천 한벽교에서 신봉교까지 9km 구간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하천변 고립과 인명사고 등 하천 재해 및 범죄예방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전주천 승암교에서 한벽교까지 구간에 하천 출입 차단시설 5개소를 신설하고, CCTV 1개소를 확충기로 했다.

여기에 시는 재난기금을 활용해 오는 12월까지 전주천과 삼천 산책로 진입로에 하천 출입 차단시설 117개소(자동 17개, 수동 100개)와 CCTV 17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설계를 추진하고,

이후 예산을 확보해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완산·덕진구에서는 지난 5월부터 산책로 인근 풀베기 작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시는 추석 명절 전까지 전주천과 삼천변 아파트 단지 등 산책로 이용객이 많은 구간과 우범 지역에 대한 풀베기를 완료해 시민과 명절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김욱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대한민국
명예문화관광축제

www.firefly.or.kr

제27회
무주
The 27th Muju Firefly Festival

반딧불축제

2023.

9/2 (토) - 9/10 (일)

주최: 무주군

주관: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방부 참모총장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 통일부 안보실 국정홍보처 정보통신위원회 디지털정부혁신추진위원회 디지털정책위원회 디지털안전보장위원회 디지털안전보장위원회 디지털안전보장위원회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15 문의: (063)324-2440